

민주 '전당원 투표제' 도입 논란

당 대표-지역위원장 선출 계파간 이해관계 엇갈려

개혁특위 검토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개혁특위) 내에서 적극 도입 검토 중인 전당원 투표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대의원 투표로 돼 있는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로 바꿔 당 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나 이를 놓고 차기 당권, 대권을 노리는 계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기 때문이다.

개혁특위가 이날 오전 당초 지도부 선출을 포함해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선출 시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곧바로 '합의 아닌 논의 과정'이라고 수정 브리핑을 한 것도 이 같은 논란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 개혁특위 위원은 "당 대표 등을 선출하는 데까지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당내 반발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개혁특위는 당 지도부 선출 시 전당원 투표제 도입 방침을 세우고 그 적용범위를 논의 중이다. 전당원 투표를 따라 적용 비율을 달리해 적용하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병행하는 안을 고려 중이며 전국단위 전당원 투표제를 운용할 때 당 세력 보정 방안

으로 인구비율 대비 당원 비율을 지역에 따라 1:1, 2:1, 1:1, 2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때엔 100% 전당원투표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투표와 모바일 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며 시도당 위원장은 전당원 70%와 시도당 대의원 30%가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당원 투표제는 지난해 10월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동영 전정배 최고위원 등 비주류 측이 "당권을 당원

에게 돌려주자"며 강력하게 주장해온 제도로, 이번 특위 논의과정도 비주류 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우선, 전 당원의 40% 이상이 호남 투표와 모바일 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에 찬성과 있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제는 호남 출신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물론, 지역별 당 세보정작업을 하겠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조직을 담당 명부에 많이 실는 인사에 계 선거 구도가 유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어 당초 취지와 달리 자칫 조

직·동원 선거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나아가 이 제도 도입이 확정될 경우 당심을 잡기 위한 차기 당권주자 간 세력 경쟁이 조기에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 당원·당구상 당권과 대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차기 당권을 누가 잡느냐는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등 이른바 '박' 등 차기 당권주자 간에도 복잡한 셈법이 나올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5일 오후 경기도 안성 천주교 미리내살버타운 유무상통마을에서 열린 민주당 안성시시민토론회에서 손학규 대표가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대책 등 5개 특위 구성 합의

여야 임시국회 18일 개회... 친수구역법 등 재상정

여야는 오는 18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근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3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해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강행 처리 이후 교착 상태를 면치 못했던 여야 관계는 두 달여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우선 18일 오후 개회와 함께 본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계류 중인 38개 민생법안과 흥진표 국가인권

위원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선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연금제도개선특위, 민생대책특위, 정치개혁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 등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생대책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 20명 참여하는 이 특위는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치개혁특위도 여야 동수로 참여

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 몫으로 했다. 이 밖에 남북관계개선특위와 연금개선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는 한나라당이 각각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지난 연말 예산안 강행처리와 함께 통과시킨 ▲침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친수구역법) ▲국립대법인서울대설립운영법(서울대법인회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지원법 ▲과학기술기초법 성령등기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복지·전세대책 '정책포럼' 만든다

민주당 김효석(사진) 의원 등 당내 중도 정책통 의원들이 '민주 정책포럼'을 만들어 복지과 전세대책 등 정치권에 쟁점이 되는 정책을 연구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15일 홍재형·강봉균·최인기·김부겸·김진표·김동철·변재일·박병석·원혜영·이강래 의원 등과 함께 전남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발기인 모임을 갖고 당 안팎

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민주당이 수권 정책당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간사는 김동철 의원이, 의장은 토론회 때마다 바뀌며 맡기로 했다.

모임의 발기인 11명은 대부분 정책위의장 출신이거나 당내 정책통으로 알려진 의원들. 민주당정책포럼은 다음주 초개 열



릴 첫 토론회에서는 김효석 의원 주도로 복지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재원 방안을 연구하는 당내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방안 기획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을 초대, 당의 복지정책 방향을 들어보고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또 김효석 의원이 구성 중인 복지정책을 설명하고 논의의 소재로 삼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김정길 전 장관 18일 광주서 강연

김정길 전 행정부총리가 18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2012 대선과 한국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조찬 강연회를 갖는다. 광주경영자총합회 초청으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에서 김 전 장관은 2012 대선의 시대적 과제와 그 해결 대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과 민주당 원내총무, 최고위원, 대한체육회 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월 27일 치러지는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조 전 수석은 "현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이 일궈놓았던 긍정적 업적을 강그리 문개뜨렸다"라며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해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에 들어가면 지역 현안인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노 광주시당 정기대의원 대회

민노노동당 광주시당은 15일 오후 전교초 대강당에서 당직자와 대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고 10만 지지자와 5000 당원 확보를 통해 2012년 총선에서 지역구를 돌파하고 진보적 집권의 기초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를 위해 '2012 위원회'를 구성해 광주지역 전 선거구 출마를 전제로 조기 총선준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4·27 순천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순용, 순천 보궐선거 출마 선언

조순용(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순천시 조은플라자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이 만든 서민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남북관계 위기 등 3대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며 오는 4



민주, 공직후보 선출 국민경선으로

孫 '목욕탕 알몸' 민생 탐방

안성 이어 17일 전주·18일 여수 행보

'여론조사 경선' 퇴출 가다

민주당 개혁특위가 15일 공직후보 선출방안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사실상 퇴출키로 가닥을 잡았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때 처음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했던 민주당이 공고롭게 9년 만에 가장 먼저 여론조사 경선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대신 특위는 국민경선으로 대선(100% 국민경선), 국회의원(국민+당원 경선) 후보를 뽑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위가 여론조사 경선을 원천 배제키로 한 것은 최근 몇 선거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경쟁력을 비교했지만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크게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왔다.

또 공천 단계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 사가 단순한 인지도 조사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현직 의원이나 단체장 출신 인사 등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말 실시된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았으나 참패했다. 여론조사 경선이 경쟁력 있는 후보보다는 인지도 높은 후보를 뽑았던 때문이란 분석이 일반적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생현장을 찾아 '민심 희망 대정'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목욕탕 행보'에 속도를 낸다.

밤 늦게까지 민심을 들은 뒤 다음 날 새벽 숙소 근처의 목욕탕을 찾아 발가벗은 몸으로 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치에 구현하려는 정책소통 행보의 일환이다.

이는 지난해 장외투쟁 중에도 이어오던 것으로 손 대표는 15일 안성을 시작으로 16일 영광, 17일 전주, 18일 여수를 방문하는 중에도 어김없이 이날 아침 동네 목욕탕을 찾기로 했다. 국회 등원 결정 전과 차이점이 있다면 민초와의 '알몸 대화'가 갈수록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제 대표 비서실 차장은 15일

"목욕탕에서 나오는 절절한 목소리를 당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목욕탕 스킨십은 물론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후보자뿐 아니라 부인까지 나서서 목욕탕 민심 확보에 나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손 대표 개인적으로는 약점이랄 수 있는 엘리트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는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 측근은 "대중 목욕탕을 거리낌없이 다니는 손 대표의 모습에 서민들이 친근감과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장외투쟁이 마무리되는 4월 중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1.03.03.(목) ~ 2011.03.08.(화) / (총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극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지역차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건축역량증명), 자선운전공인(역량 등)
학·석사 학력차	사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별업종별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차	국가 지정제 공인기관 지정명사·지정명사·중·개별업종 관련 총사제, 개별업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문의/전화 www.gred.kr
 •원 장이명규 교수 062-670-2421
 •부 원 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사무국장 김병철 062-233-3119

LS 랜드스쿨 LS 랜드스쿨 LS 랜드스쿨

부동산 교육의 최강자!!
랜드스쿨
gin.landschool.com

LS 랜드스쿨 LS 랜드스쿨 LS 랜드스쿨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남보다 한발 먼저
기본서와 단원별
문제풀이집으로 시작하십시오

공인중개사
무료특강!

전남고시학원
☎222-5105 전남여고 건너편

12년 국가영능력평가시험 완벽준비

심수년간 유학으로 단련된
압구정인들이
영어회화가 유창하도록 교육합니다

'12년 국가영능력평가시험 완벽준비
IBT 방식 평가는 화상전반형식인
압구정영어가 좋다

원어민 선생님과 1:1 리딩 · 회화를 숙련한다
한국인 선생님이 1:1 독해 · 문법 강의를 한다
결론은 多讀, 多聽, 多읽이다
수강비는 월 100,000원 입니다.

선생님이 회화가되면
학생은 당연히 유창할수있다!

- 초, 중, 고 영어관련선생님 영어강의 도와드립니다
- 교수님, 예비교수님 영어강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 가이드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원어민 1:1
압구정영어회화 · 리딩
ah-english.com | 070-7433-0594

국비지원/일반인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웰빙(참살이)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강의 전문가사진으로 대쪽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3월 [5일(토) 주말반] 대개강
[본원 교수진 동영상 강의 무료보강]
www.egosil.co.kr

★농업인 · 축산인 · 임업인 특별혜택★

◆ 언제든 청강 환영!
[서충철경영박학사, 김세미농학박사, 윤종아(전)풍관원, 초대농부사협회장, 손승운, 송상호, 전정훈교수진]

◆ 7·9급 농업직, 농촌지도사
18년 경력의 손승운 교수팀 직강

전남농업전문원 ☎226-5050
위치 : 전남여고 건너편 학원가입구, 광주고시학원건물 3층(부경빌딩서 전남여고 쪽)